중국, 바이오디젤 식물 경작 확대

잠비아 200만ha에 자트로파 재배 … 비식용으로 박토 이용 가능

중국이 200만ha에 달하는 잠비아 농경지에 바이오디젤(Bio-Diesel) 원료인 자트로파를 경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최근 발생한 정변으로 무산 위기에 처한 대우로지스틱스의 130만ha 농지 임차사업을 훨씬 능가하는 규모이다.

타이슨 치삼보 잠비아 바이오연료협회 회장은 남아프리카공화국 Johannesburg 인근 Midland에서 열린 바이오연료 국제회의에 참석해 "중국이 잠비아 정부에 200만ha 규모로 자트로파를 경작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자트로파는 씨앗에서 나오는 기름이 바이오디젤 원료로 사용되는 비식용 식물로 박토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

시장조사기업 Frost & Sullivan은 잠비아의 바이오연료 생산량이 2013년에는 연평균 5000만리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4/01>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